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아시아종묘(154030)

농업, 임업 및 어업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정다솜 책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4.01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아시아종묘(154030)

풍부한 육종 경험을 기반으로 고수익 기능성 신품종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기업정보(2021/10/25 기준)

대표자	류경오
설립일자	2004년 06월 24일
상장일자	2018년 02월 1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주요제품	종자 (단호박, 양배추, 무, 고추 등) 및 간이텃밭 등

시세정보(2021/10/25 기준)

현재가	7,01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744억 원
발행주식수	10,619,969주
52주 최고가	10,800원
52주 최저가	4,520원
외국인지분율	2.45%
주요주주	
류경오 외 2인	30.10%

■ 풍부한 육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품종 자체 연구개발

아시아종묘(이하 동사)는 종자를 자체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고순도 종자 생산 기술 및 품종 육성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갖는 다양한 기능성 품종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국내 3곳의 연구소(해남, 이천, 김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약 30% 이상을 연구인력으로 구성하는 등 자체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연구소에서의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현지 기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종자를 개발하고, 신품종들의 현지 적응성 테스트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매출액의 20% 이상을(국가보조금 포함) 자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지속적인 국가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고기능성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 고수익 기능성 품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종자 산업은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외 종자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Global Industry Analysts, Inc.(Strategy R)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6.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세계 채소 종자 시장은 약 185억 달러 규모로 예측된다.

동사는 기후 변화에 적응성이 좋은 내재해성 품종, 특정 성분을 함유하는 고기능성 품종,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니 품종 등 고수익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더불어 사업분야 확장을 통해 최근 3개년간 국내 시장 및 수출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동사는 9월 결산 법인으로 본 보고서상 2020 회계연도는 2019.10.01.~2020.09.30.을 의미함.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184.6	-12.0	-15.6	-8.5	-22.0	-11.9	-12.4	-6.7	79.4	-248	2,037	-	2.7
2019	180.8	-2.1	-15.6	-8.6	-41.3	-22.8	-24.6	-11.3	169.7	-440	1,562	-	4.4
2020	228.4	26.4	9.3	4.1	-14.2	-6.2	-9.6	-3.6	152.4	-151	1,591	-	3.2

기업경쟁력

자체 연구 개발 인프라 보유

- 자체 R&D 연구소 보유
 - 국내 및 해외 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 현지 기후를 활용한 효율적 종자 개발 및 신제품들의 현지 적응성 테스트 수행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국가 연구 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자체 투자로 고기능성 신제품 연구 기반 마련

고수익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고수익 품종 개발을 통한 효율적 수익 창출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재해성/내병성 품종 개발 및 이를 통한 수출 규모 확대 (예 : 양배추 '윈스톰')
 - 소비 경향을 반영한 기능성 특이 품종 (예: 혈당 강화 성분을 강화한 '미인꽃고추'), 미니 사이즈 품종 (예: 단호박 '미니강1호') 개발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및 신제품 육성

- 고순도 종자 생산 기술
 - 매개곤충에 의한 종자 생산량이 300% 이상인 모본을 선발하고, 자식 종자가 생기지 않는 융성불임성 기술을 이용하여 고순도 종자를 육종
 - 암꽃만 착화되는 자성주를 이용하여 비용효율적으로 고순도의 F1 품종 생산
-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및 품종 육성 기술
 - 분자 마커 : 순도 및 형질 관련 마커 개발
 - 약배양 및 소포자 배양 : 계통 육성을 통한 다양한 육종 소재 확보
 - 병리검정 : 주요 병해 진단 및 저항성 생물검정

매출 구성 및 주요 품종

- 매출 구성
 -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종자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음

(2020 회계연도 기준)	내수	수출
매출액 대비(%)	73.1%	26.9%

- 주요 품종 : 단호박, 양배추, 무, 양파, 청경채, 고추 등

시장경쟁력

국내외 채소 종자 시장 규모

연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2011	46억 달러	2,337억 원
2020	116억 달러	3,034억 원

*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 한국종자협회

- 국내외 종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상업용 채소 종자 시장은 2027년까지 1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성장률 약 6.9% 추정)
- 최근 3개년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적 증가 추세

최근 변동사항

시장 변화에 따른 R&D 역량 강화

- 제품 다각화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강화로 실적 기대
-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시설 및 장비 확충
 - 우수한 품질의 종자 개발, 증식 검정 등 연구 역량 강화 기대
-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을 위한 신규 과제 참여
 - 산업 흐름의 변화에 맞추어 빅데이터/AI 기술과 생명공학 융합 연구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화학 제품과 농약 등을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
- 동사는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아미노산제 비료인 바이오테를 제공함.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고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동사의 제품을 후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동사는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과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근속연수는 동 산업 평균 이상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함.
- 동사는 회계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를 선임하고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내부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전반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품종 판매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동사는 자체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종자를 육종, 생산, 개발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약 90% 이상을 종자 판매가 차지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작물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우수 품종 재배 농가 확대 및 고기능성 품종 출시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회사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2004년에 설립된 종자 전문회사로 종자를 자체 개발/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코스닥, 2018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전남 영암의 품질관리소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국내 연구소(전남 해남, 경기 이천, 전북 김제)를 설립하여, 육종연구와 더불어 병리 검정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가 연구 과제 수행 및 꾸준한 자체 연구비 투자로 고품질의 다양한 품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연구 시설 보강을 위한 연구시설 증축과 추가 장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의 해외 연구소(인도, 베트남)를 통해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현지 기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종자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제품들의 현지 적응성 테스트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월동형 양배추 ‘원스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양배추의 수입대체율을 증가시킨 품종으로 국내 종자업계 최초로 2017년 장영실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멜론 품종인 ‘오렌지 실버 웨이브’는 2018년 전미주 품종상(All american selection Award, AAS)을 수상하여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더위에 강한 양배추 ‘대박나’는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의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수출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동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연혁

연도	월	내용
2018년	2월	코스닥 상장
	3월	iR52 장영실상 대통령상 수상
	7월	전미주품종상 수상(오렌지 실버 웨이브)
	10월	베트남법인 ASIA SEED VIETNAM COMPANY LIMITED 설립
2019년	4월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8월	도시농업백화점(채가원) 설립
	12월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지역상생 기업 부문 수상
2020년	10월	2020 월드클래스 중견·강소기업 대상 수상
	12월	제16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출상(국무총리상) 수상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고수익 기능성 품종 자체 개발을 통한 매출 제품군 다각화

국내 종자 기업들 중 품종 육성부터 가공처리 및 유통까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동사를 포함하여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동사는 꽃가루가 생산되지 않는 웅성불임성, 암꽃만 착화되는 자성주 등을 이용한 자체 육종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약 1,439종의 채소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더불어 높은 농촌 인구 감소, 1~2인 가구수 증가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특이 품종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내서성과 내병성을 갖춘 양배추 ‘대박나’와 재배안정성(내한성, 내병성, 포장저장성)이 우수한 양배추 ‘윈스톰’은 국내외 유수의 대회에서 품종상을 수상하여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양배추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혈당 강하 성분과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한 ‘미인풋고추’,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추 ‘드셔보라’,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검은색 토마토 ‘신흑수’, 고당도의 노란수박 ‘슈퍼골드’는 동사의 대표적인 기능성 품종이며, 이들은 타 품종 대비 수익이 높아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동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형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경향을 반영해 소형 품종 개발을 통해 매출 제품군을 다각화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양배추 품종 ‘꼬꼬마’는 ‘농진청 수출유망품목’ 및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 기관포창)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꼬꼬마’를 재배하는 군산소형 양배추연구회는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1] 동사의 대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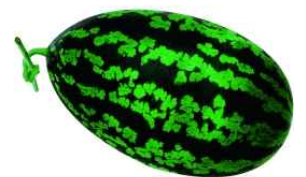
미인풋고추



드셔보라



신흑수



슈퍼골드



뉴꼬꼬마



미니강1호



스위트베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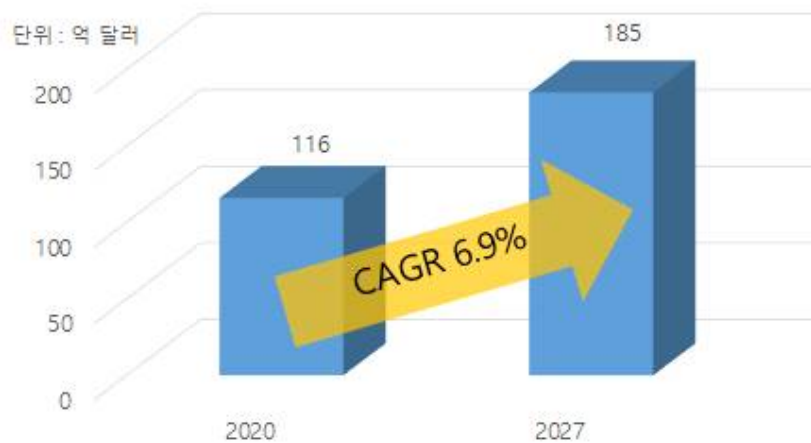
꼬꼬마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2020년 국내 채소 종자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한국 종자 협회).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에 따르면 전세계 과채류 종자 시장은 2020년 약 116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6.9%씩 성장하여 2027년까지 약 185억 달러(약 21조 9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세계 과채류 종자시장 규모



*출처: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21.04),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내수 및 수출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최근 3개년간 6.13%, 6.46%, 7.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품종 재배 지역 확대 및 고기능성 신품종 출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하는 첨단 육종 기술 도입시, 향후 4차산업과 융합하여 신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세계적인 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입하는 비용은 매출액의 약 10~13%를 차지한다(2020 Bayer Annual Report). 동사는 매년 총 매출액의 20% 이상(국가 보조금 포함)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21년부터 3개년간 연구소의 현대식 시설 확충을 위해 약 27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연구 시설 증축, 연구 장비 확보 등을 예정하고 있다. 더불어, 작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육종전문가 영입을 통해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동사의 종자를 활용한 재배농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구군에서는 초당옥수수 ‘3511R’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저지대에서 재배되어온 양배추 품종 ‘꼬꼬마’의 경우, 강원도 삼척 등 고랭지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품종이었던 계란형 토마토 ‘히어로120’는 올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되었다.

SWOT 분석

[그림 3] 동사의 SWOT 분석



경쟁사 분석

2020년 기준 채소 종자업 등록 업체는 480곳으로 추정된다(국립종자원). 국내 종자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동사를 포함하여 농우바이오, 사카타코리아, 코레콘, 한국다끼이, 신젠타, 팜한농 등이 있으며, 동사는 유효한 품종 보호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228.4억 원, 농우바이오가 1,300.3억 원으로 농우바이오의 매출액이 동사 대비 4.7배 가량 큰 수준이며, 사카타코리아의 경우 270억 원으로 동사와 유사하였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4.1%, 농우바이오 3.2%, 사카타코리아 26.0%로 나타났고, 전년도 대비 매출액증가율은 농우바이오 16.6%, 사카타코리아 13.0%에 비해 동사가 26.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매출액순이익률은 적자를 나타내며 농우바이오, 사카타코리아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종자 시장 주요 기업

(K-IFRS 연결 기준)

구분	아시아종묘	농우바이오	사카타코리아
주요 사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품종 보호권 (등록)	133건	87건	47건
매출액	228.4억 원	1,300.3억 원	270억 원
매출액증가율(%)	26.4	16.6	13.0
매출액영업이익률(%)	4.1	3.2	26.0
매출액순이익률(%)	-6.2	7.9	22.2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현황(2021.10.13. 기준),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친환경 농업이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수질, 대기,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생산력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농업을 말한다. 동사는 기능성 채소 종자 사업을 영위 중이며,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여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비료,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농가의 경영 비용을 줄였다. 또한, 동사의 제품인 아미노산제 비료 바이오스티플은 닭털, 꽃게, 새우 추출물 등 100%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으로 동사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제품을 개발 및 제공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고객 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고객 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와 소통하고 재배기술과 작물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방법 등의 영농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2020년에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하여 배추, 고추, 열무, 상토 등을 후원하였으며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장애인 가구에 전달하였다. 2017년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김치를 전달하는 행복플러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무를 후원하는 등 동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는 여성 임원을 보유 중이며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34.3%로 동 산업(A01, 농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25.7%를 웃도는 수치이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82.6%로 산업 평균인 66.0% 이상이며 임금 수준 또한 66.4%로 산업 평균인 62.0% 이상으로 동사는 고용 수준에 있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34	16,342	3.8	10.6	26,627	46,128
여	70	5,640	4.6	7.0	17,686	28,584
합계	201	21,982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인 대표 류경오와 그 특수관계인 2인이 3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69.90%이고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로 2021년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였다.

동사는 경영 업무 집행을 위해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동사의 사외이사는 한국농업경영인으로 종자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계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지원조직(경영기획실)을 운영하여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점검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표 4]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30.10
사내/사외	2/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69.90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2020 회계연도 매출 성장 나타낸 후, 2021 회계연도 3분기까지 성장세 유지

2020회계연도 매출 성장을 나타낸 가운데, 2021회계연도 3분기(20년 10월~ 21년 6월)에도 국내외 매출이 고루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간 대비 영업실적이 증가하였다.

■ 다양한 품종의 보유를 바탕으로 양호한 내수 시장 지위 확보

동사는 종자의 개발 및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새싹재배에 필요한 새싹재배기의 유통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비중은 높지 않아 사실상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주력 매출군인 종자 제품의 경우 단호박, 양배추, 무, 양파, 청경채, 고추 등 1,439종의 채소 종자와 기타 종자 243종 등 다양한 종류의 종자를 주요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 유형은 크게 제품(종자)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기준 유형별 매출 구성은 제품 96.62%, 상품 3.38%를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 1,400여 개 시판상 등을 통해 국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활동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동 등에 영업거점을 마련하여 수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2020회계연도 내수/수출 비중은 2020년 73.1%, 26.9%를 각각 기록하며 내수 위주의 매출 구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판매방식은 영업조직을 통해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여 납품하는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의 경우 국내 영업, 도시농업, 해외 영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실적 회복 및 성장

2020회계연도 매출액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80.8억 원 대비 26.4% 증가한 228.4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종자와 농업 자재를 취급하는 도시농업백화점의 출점을 통해 국내 틈새 수요자들의 기호에 호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회계연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89.4억 원으로 국내 유통채널 다변화 및 주요 수출국들의 섣다운 해제 등에 따른 종자의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외 판매실적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3분기 누적 매출액 대비 12.0%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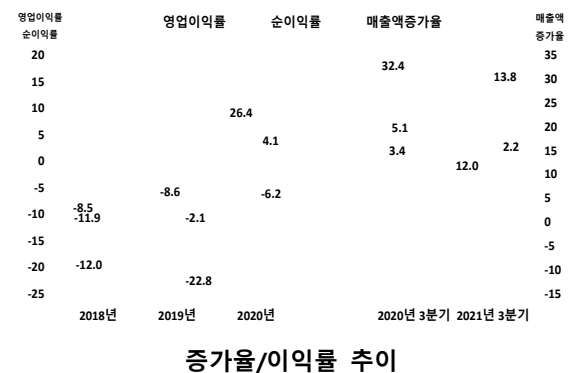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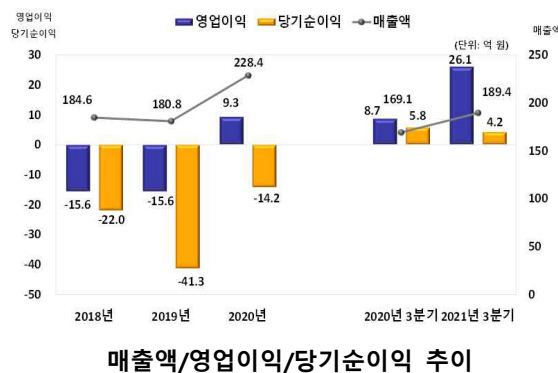
■ 2020회계연도 영업수지 흑자전환, 2021회계연도 3분기 영업이익 확대

2018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2020회계연도에는 매출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로 인해 9.3억 원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다만, 이자 비용, 유형자산손상차손 등의 영업외비용 증가로 14.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전체수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다.

한편, 2021회계연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세에 힘입어 전기 대비 200% 증가한 26.1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금융부채상환손실, 이자 비용 등 영업외수지 적자 폭 확대로 순이익 규모는 전기 대비 26.7% 감소한 4.2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림 4]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9),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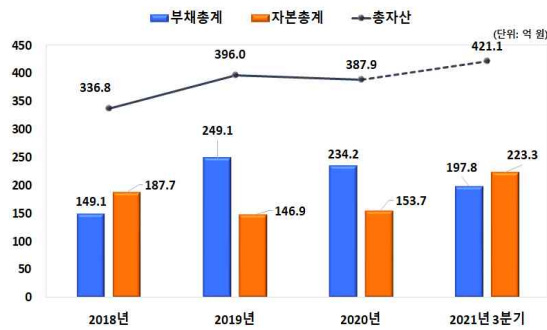
■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자본전입으로 재무안정성 개선

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환우선주부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자기자본 확충 및 전환사채의 전환권 청구 등으로 인해 부채부담이 완화되어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169.6%에서 152.4%로 하락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은 37.1%에서 39.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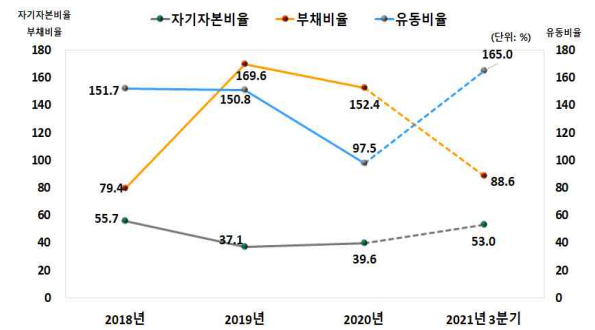
한편, 2021회계연도 3분기 말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및 순이익의 내부유보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확충에 힘입어 부채비율 88.6%, 자기자본비율 53.0%를 기록하는 등 2020회계연도 말 대비 큰 폭으로 개선,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9),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184.6	180.8	228.4	169.1	189.4
매출액증가율(%)	-12.0	-2.1	26.4	32.4	12.0
영업이익	-15.6	-15.6	9.3	8.7	26.1
영업이익률(%)	-8.5	-8.6	4.1	5.1	13.8
순이익	-22.0	-41.3	-14.2	5.8	4.2
순이익률(%)	-11.9	-22.8	-6.2	3.4	2.2
부채총계	149.1	249.1	234.2	230.2	197.8
자본총계	187.7	146.9	153.7	168.1	223.3
총자산	336.8	396.0	387.9	398.3	421.1
유동비율(%)	151.7	150.8	97.5	103.2	165.0
부채비율(%)	79.4	169.6	152.4	136.9	88.6
자기자본비율(%)	55.7	37.1	39.6	42.2	53.0
영업현금흐름	-3.3	-14.7	-7.5	3.7	24.4
투자현금흐름	-8.4	-84.8	-0.1	-0.5	-19.0
재무현금흐름	26.0	88.6	-5.6	-5.4	18.9
기말 현금	30.3	20.2	6.7	17.9	30.9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9), 동사 분기보고서(2021.06), NICE 디앤비 재구성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코로나 완화 및 자체 개발 품종 등 경쟁력 바탕으로 실적 향상 기대

코로나 사태 완화로 인한 국/내외 전방시장의 업황 개선 기대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하여 매출 성장세가 예상되며, 정부 주도 국가사업에 힘입어 국내 최대 자체 개발 품종 보유한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2021 회계연도 매출 성장 기대

동사는 삼모작이 가능한 열대지방의 기후인 베트남 현지법인의 본격 가동으로 종자육성 개발 기간 단축, 마케팅과 영업부서 통합을 통한 온, 오프라인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개선요인의 영향으로 2021년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동사의 매출 대부분을 종자 판매액이 차지하고 있으나, 종자 외 신제품 출시(단호박 전용 비료, 영주 대장간 콜라보 굿즈 등, 농업 자재를 총망라한 도시 농업 백화점 ‘채가원’ 개점, 도시농업 컨설팅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분야 확장과 더불어 고품질 품종의 해외 수출 강화를 통해 향후 매출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주력제품 경쟁력 강화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자체적으로 쌈채소, 새싹채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21년부터 연구 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 증축 및 추가 장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 지원 하에 시설 토마토 우수 계통 선발에 필요한 육종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수 내재해성 토마토 계통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육종 전환지원 사업, 안정적 종자 및 모종 공급과 기능 성분 문헌조사 및 DB 구축 사업 등 다수의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제품군 확장으로 향후 동사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을 위한 신규 과제 참여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디지털육종 전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 육종기술은 2000년대 이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여 연구되고 있다. 관행육종·분자유종을 벗어나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전통 육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품종의 개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 종료될 골든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 사업에 이어 2022년부터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총 10개년, 6,380억 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자 산업분야의 연속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AI 기술과 생명공학 융합 연구로 국내 종자 기업들의 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IBK 투자증권	Not Rated	—	2020.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를 개발/생산하여 국내외 작물 재배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 ■ 종자산업은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소요되며 개발 성공 시 품종 등록을 통하여 20년 이상 독점적 실시권리행사가 가능한 기술적 진입장벽이 있음 ■ 오프라인 점포 출점, 해외법인 설립, 마케팅 강화 등으로 실적 전망 긍정적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6]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 10. 22.)